

# 환경·이념·문명위기 불교해법 제시

## 동국대 개교 90돌기념 '21세기 문명과...' 국제학술회의

### 포스트모더니즘 등 불교 접근 시대변화 대응·정보사회 대비

#### 제1분과-21세기 문명 불교적 조명

김용경교수(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불교의 공(空)'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서구의 주체분리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와 현대문명의 폐해에 대한 한계의 인식에서 출발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불교의 무(無)나 공(空)에 접근해 오고 있는 사실이며,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를 넘어서 전 자연 전 역사를 텍스트로 보려는 데리다(Derrida·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의 사상 역시 다분히 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사상과 상통하는 바람직한 사상종류라고 주장했다.

마츠모토 시로 교수(松本史郎·일본 고마자와대 불교학)는 '불교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근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불교가 취해야 할 바른 도리라는 의미, 인권이나 개인주의, 민족주의, 사회개혁과 같은 근대의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근대가 갖가지 명목의 악에 뒤받침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이성과 지성의 분립적인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세계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개개의 고통과 악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시노 에키코 교수(星野英子·일본 대정대학)는 '일본불교와 전자매체' 발표문에서 신종종교들은 최근에 생겨난 정보 과학기술의 시류에 편승해 적절한 시대적 대응을 못하고 있으나 전통불교는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생 등의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홍교수(서울대 철학)는 '불교와 정보사회'에서 불교도들은 정보사회를 이음, 법의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불교의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세계 정상급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불교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10월 24~25일 이틀간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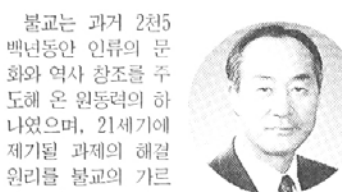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내학자 10명 외국학자 9명 등 모두 19명의 불교학자가 5개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21세기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비전정립과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교류를 통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꾀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상호대화 '지구윤리' 제시해야 모든 종교 공존하며 평화기여

#### 제2분과-종교다원주의와 불교

이기원 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종교와 평화' 주제발표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종교를 믿는 마음보다 한층 더 지적으로 우월하며 구체적이라고 언급하고 모든 종교가 그 이름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이홍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종교다원주의의 불교적인 조명'에서 세속 다원주의는 현실적 차원에서 다원현상의 민주적 질서를 추구하는데 반해 대승사상은 존재론적인 근거와 수행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서양의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선형적 논의의 취약점을 견제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의 공사상은 인간의 존재론적 회담과 그 회담이 이념화된 결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레널드 스워드러 교수(Leonard Swidler·미국 템플

#### 기조강연-송석구 총장



송석구 총장

### 가치관 혼돈 인간성 부재현상 우려 '불성·연기사상' 이상적인 생활원리

불교는 과거 2천5백년동안 인류의 문화와 역사 창조를 주도해 온 원동력의 하나였으며, 21세기에 제기될 과제와 해결 원리를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불성(佛性)사상과 연기(緣起)사상에서 찾아야 한다. 후기 산업사회, 초 산업사회라 표현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사회의 도래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생명의 물질화, 생태계의 파괴와 공해로 인한 질병, 세속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자취 혼돈과 정신문명의 파괴가 심화 우려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정신적 가치관의 혼돈은 물질문명의 폐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성의 부재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념적 방향과 후기 산업사회가 당면한 제 문제에 대해 불교는 마땅히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불성사상과 연기사상에 대

한 '향내적 자각'과 그 '향외적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향내적 자각이란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불성의 주인임을 깨달아 불성을 자기의 인격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본래 이미 깨달은 존재이며 불성의 존재라는 의미며 향외적 실천이란 내적 불성의 빛을 사회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동체자비의 정신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삶의 길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 중심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성중심보다는 직관과 초월의 논리 역시 모든 이념과 경계를 초월하는 선불교 정신, 공(空)사상, 연기사상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정신의 근간이 된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길을 비추어 주는 영원성을 지닌 진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원리로서의 연기법과 업의 원리, 욕망의 극복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관·가치관·생활방법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스 슈바르츠 교수(Hans Schwartz·독일 로젠스버그 신학대)는 '불교와 자연' 주제발표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불교는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슈바르츠 교수는 불교인들은 인간이나 비인간도 우리 자신의 사용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교훈을 이해한다면 환경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각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역시 슈바르츠 교수와 동일한 주제발표에서 여래는 이미 2천5백여년전에 자연은 나 아닌 남이며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이고 무한하지도 않은 유한한 것임을 깨달고 가르쳤다고 설명하고 손상된 20세기의 자연을 사무량심과 무소유심으로 가득한 깨끗한 본연의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David Kalupahana·하와이대 철학)는 '초기불교와 환경'에서 인간의 삶, 물질적·사회적 환경, 도덕적 삶 등에 대한 붓다의 원리 적용으로 환경에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승적 사상·보살도 실천 필수 미래사회 대비 자기혁신을

#### 제5분과-한국불교의 세계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와 정병조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장)는 한국불교는 21세기가 기대하는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건기 교수는 '세계 속의 한국불교의 현황과 전망'에서 한국불교는 오늘날 세계가 절실히 요청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해야 하며 불교야말로 어떤 종교·사상·철학보다도 훌륭한 바탕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조 교수 역시 건전한 수도정신과 함께 지성화의 물결이 한국불교를 주도하고 있는만큼 한국불교의 미래는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물론 시대감각의 결여, 조직성 빈곤 등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신행단체 등 사회적 불교계 전반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은 이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교수(미국 뉴욕주립대 한국학)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종교적 성찰'에서 한국불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속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문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용기와 자기혁신, 미래사회를 대비한 부단한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Robert Buswell·미국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학)는 '탈(脫)국가 시대에서의 한국 불교의 모습' 주제발표에서 20세기 이전의 한국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불교는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것이 국가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근대 이전의 불교조망을 피하고 우리 스스로를 개방시켜 놓을 때만이 오늘날의 한국 불교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우 기자

### 6바라밀 실천 사회정의 실현 대립·갈등 '화엄세계관' 이해결

#### 제3분과-지구화시대 윤리와 불교

가치의 혼란과 정의의 상실을 반복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사회정의실현은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같은 화두에 대해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와 김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대승보살의 삶'과 '화엄적 세계관'이라는 명제를 던졌다.

권기종교수는 발표문 '보살의 삶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은 여러바라밀의 실천에 의한 대승보살의 삶의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은 고유한 실체가 없다(諸法空)는 지혜의 완성과 지혜의 완성으로 일체의 집착을 벗어난 나와 자연이 공존의 연기적 관계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성교수는 '화엄적 세계관과 사회 갈등의 문제'에서 화엄의 세계관은 중심이 도처에 존재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부상조하는 이상적 사회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극상입(相相相入), 즉 사회전체를 유기체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화엄의 세계관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연·인간 상호공존 정신 필요 '사무량심·무소유' 지혜 배워야

#### 제4분과-자연·환경·생명과 불교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환경문제의 불교적 조명'에서 환경문제는 인간의 중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소산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



○세안교수 ○슈바르츠교수 ○버스웰교수 ○칼루파하나교수 ○박성대교수 ○스워드러교수 ○티아마교수 ○마츠모토교수 ○호시노교수

### 해의석학 누가 오나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학자는 미국의 로버트 써만(Robert Thuman)교수.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써만교수는 미국 인도화학회 등 각종 불교연구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불교학자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물.

이번 학술회의 주제 '대승불교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정의하고 있듯이 특히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참가자중 유일한 신학자인 독일의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교수 역시 눈길을 끄는 인물.

### 美 써만·버스웰 獨 슈바르츠등 학자 9명 참가

레겐스버그대학 신학교수와 미국 루터신학대학 교양교수로 재직중인 슈바르츠교수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세계 여러 종교와 특이한 대화를 꾀하면서 종교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U.C.L.A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교수는 참가 외국인 학자중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한국 보조사상연구원 회원으로 지능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버스웰교수는 미국 종교 학회에서 한국종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시아

학술협회의 한국학 위원회 의장을 맡는 등 한국 불교에 정통한 인물이다.

미국 하와이대 종교학교수인 데이비드 칼루파 하나(David Kalupahana)는 불교철학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내는 등 불교철학의 역사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리랑카와 지중해 교류를 통해 남방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또 성철스님의 사자로 오다가 환속해 불교학을 연구하는 박성대교수가 스톤리 북부 뉴욕주립대 한국학과 불교학 교수 자격으로 참석한다.

### 불교전통의식범음·법배강좌안내

불교전통의식의 저변확대와 신심고취 향상을 위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설하오니 뜻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 음

- 개강일시: 1996년 10월 18일(이후 수시모집)
- 교육시간: 화·금요일 6시부터
- 교육과목
  - ▷상주권공 및 작법 - 바 라 - (천수·사다라니·요잡)
  - ▷작법(나비춤) - (도량계·다계·사방요신)
  - ▷시련·대령·관속·신중작법·관음시식
  - ▷사물다루는 법·기초의식·상단 중단·불공 강의

본 교육원에서는 일불제자로서 뜻있는 스님은 누구든 환영하며 다년간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계신 오승강스님께서 직접지도하며 졸업 후 시험을 통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강 원 : 841-1154 (오후 6시 이후 전화요망)  
핸드폰 : 011-258-03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승강범음강원**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귀의상모하우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 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대됨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현역,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음향연구가 김문학』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특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입니다.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하시는 마이크입니다.

DX-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공급가 : 180,000원

TM-108 영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방שמ법회, 휴대앰프 전기/뱃터리 겸용 ●고성능 무선 판-마이크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유통상가 지하1층 다열 18, 19호  
☎ (02)671-9356 ~ 7

유코전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